

프랑스 시민대학, “대학 밖 대학” 특성과 운영

황성원
(건양대학교)

I. 서론 : 시민대학의 특성

유럽 각국에서 시민대학(Université populaire)은 대중교육기관으로서 이론적이며 실천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독일은 덴마크와 영국의 영향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성, 계층, 연령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교육과 일반 교양교육 사이에 구별을 두지 않고 통합적인 교육활동을 지향하고 있다(박효진, 2007: 13). 이러한 시민대학은 덴마크가 절대군주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계몽교육 차원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시민대학은 빈곤층과 소외층에게 시민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 철학자이자 루터파 목사인 그룬트비(Grundtvig(1783-1872)가 처음 도입하였다(서지현, 2005).

그렇다면 인접 국가인 프랑스의 시민대학은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이나 성인교육 관점에서 독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프랑스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프랑스의 “대학 밖 대학”¹⁾

1) 자크 데리다는 철학과 다른 학문 사이의 장벽을 넘는 교육기관으로서 모든 사람들

이라는 시민대학의 역사, 운영 특성,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시민대학은 반유대주의적 상황과 의무교육의 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하였다.²⁾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 시민대학은 이러한 비이성적 태도와 절제되지 않은 열정에 인본주의적 해답을 주고자 하였다. J. 페리Ferry 등 공화파가 주도한 19세기 말 학교개혁 당시, 초등교육의 무상화는 학동기 시절에 공교육을 받지 못했던 성인들에게 학습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보통교육을 받지 못했던 당시의 성인들도 어린이들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시민대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시민대학의 다양한 형태인 “비종교적 시민대학” “민주시민과 민중대학” “작은 시민대학” 등 여러 이름 등으로 불리었던 모호하고 막연한 명칭을 명료화하였다.

처음에 '시민'과 '대학'을 결합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은 시민대학이 파리 8대학처럼 서민층이 모여 사는 환경에 설립되었거나 뱅센느(Vincennes) 대학이 주장하듯이 서민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민대학을 한 가지 형태로만 고정해서 볼 수는 없다 (Chateigner, 2010).

F. 샤테니에Chateigner는 2010년 5월 11일 파리 8대학 시민대학과 시민교육 세미나에서 프랑스 시민대학의 주요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시민대학을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프랑스 시민대학연합을 약자로 표기한 AUPF(Association des Universités Populaires des France)이며, 주로 북유럽과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 또 다른 하나는 M. 옹프레Onfray가 사상의 협력La Coopération des idées³⁾에 기초하여 설립한 캉(Caen) 시민대학이다. 그 외에 다른 두 가지 유형으로 ATD

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대학을 “대학 밖 대학”이라고 불렀다.

2) L. Mercier는 자신의 저서에서 1899년에서 1914년까지 진행된 시민대학의 설립은 민중교육과 노동자 운동을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3) 프랑스의 시민대학은 사상의 협력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대학 역사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Quart-Monde 시민대학⁴⁾과 모든 연령층을 위한 대학이 있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네 가지 유형 중 대학의 기능과 유사하지만 다르게 운영하는 대학 밖 대학으로서 특성을 가진 시민대학연합 사례와 캉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초기부터 프랑스의 시민대학은 서로 연합하여 존재해 왔다. 유럽시민대학 학장 L. 브라운Braun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위치해 있는 유럽의회 도시인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시민대학은 연합Associ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말하자면 동일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개인은 집단 내의 구성원으로서 개별적 발달을 하고, 그런 개인이 모여 구성된 연합이라고 표현하였다. 말하자면 시민대학의 독창성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증진시키며, 개선된 관계는 궁극적으로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시민대학연합인 AUPF에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원칙으로 시민대학은 선발 기능을 갖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샤테니에는 시민대학이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교양과 문화의 정통성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언어, 컴퓨터, 요리 등을 중심으로 한 강좌들은 교양문화의 정통성과 상관이 없으며, 주로 사회문화적인 활동을 추구한다. 이런 문제는 오랫동안 AUPF의 토론 주제였으며, 토론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합법적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교육이 갖는 의미와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을 주로 다루었다. 이렇게 지식과 자격의 상대주의는 대학교육과정에서 기술교육과 방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프랑스 시민대학은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을 보장할 수 있어 매우 대중적이다.

둘째 원칙으로 시민대학은 지역사회의 발달에 기여하며, 이는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시민대학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형식적이다. 교육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시민대학 형태 자체에서 정치

4) ATD Quart-Monde 시민대학은 기아와 빈곤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대학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를 말한다. 드프렌느-타르디외Defraigne-Tardieu는 이 유형의 시민대학을 주제로 하여 2009년 파리 8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적 성격이 드러난다. 시민대학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민들에게 주는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원칙은 시민대학 자체의 다양성과 운영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Chateigner, 2010). 여기에는 재정지원의 문제가 있다. 보통의 규정에는 연합 회원들이 활동에 참여하면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내야하고, 이는 교수자에게 강사료로 지급된다.

또 다른 프랑스 시민대학의 주요 유형에는 2002년부터 M. 옹프레Onfray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노르망디 지방의 캉Caen 시민대학이 있다. 그는 철학자이며, 학교에서 스스로 물러난 전직 교사이다. 샤테니에는 그가 학계에서는 학술적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현재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의 존재감은 엄청나다고 한다.

M. 옹프레Onfray는 일반인들에게 지식을 무료로 나누어 줌으로써 교양과 문화를 대중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서의 교양이나 문화는 자신을 구성해가는 자원으로 보는 것이지 사회경제적인 체제에 입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크고 대단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토론, 포럼, 세미나, 계절 대학의 성공과 출판인들 사이의 아이디어 수집은 진정성 있는 삶에 대한 욕구를 증명해준다고 하였다.

이 철학자는 대중들에게 지식의 욕구를 채워주고자 대학교의 엘리트주의와 철학 카페의 즉흥적 반응 사이에 고민한다. 대학교의 엘리트주의는 사회체제를 재생산하여 체제 내의 자리를 확실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것이고, 철학 카페와 같은 실천은 자신 혹은 타인과 철학적 대화를 강조하는 것이다⁵⁾.

옹프레가 상상한 시민대학은 지적인 요구가 높은 전통적인 대학과 철학 카페에서 보여주는 장점을 동시에 취하는 것이다. 전통적 대학에서는 전달된 정보의 질과 개인의 진보를 허용하는 원칙, 모든 토론 이전에는 우선적으로 강의의 전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철학 카페에서는 대중에게의 개방, 지식의 비판적 접근, 강의 내용을 쉽게 접근하는 수단으로서 대화를 실천한다. 그는 “철학을 시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철학이 있는 곳까

5) 이 말은 철학 카페를 열어 철학을 막연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대중들이 개인 내적 또는 개인 간 철학적 대화의 실천을 자유롭게 진행한다라는 뜻이다.

지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김세희, 2005).

II. 프랑스 시민대학의 역사

프랑스의 첫 시민대학은 1899년 “사상의 협력La Coopération des idées”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고, 상호 교육'éducation mutuelle을 위한 우호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사상의 협력”이라고 말한 드에름Deherme은 몽트뢰-수-브와Montreuil-sous-Bois 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시민대학의 형성을 주도하였으며 개인의 행동이 다른 인간을 통해 보완되고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말하자면 노동자가 연구방법을 이해하려면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식인은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노동자로부터 안내 받는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상호 교류하며 함께 고민하는 곳이 시민대학이다.

드에름은 독학한 인쇄공으로서 노동자들 중 지식수준이 높은 엘리트층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전통교육의 장에서는 소외되어왔다. 그럼에도 사회학 월간지를 제작하여 A. 콩트Comte와 실증주의, 유럽의 식민지화 등에 관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시민대학이 과학적이며 철학적 영감을 일깨우고 사회과학을 대중화하는 중심 기관이기를 원하였다. 1899년 시민대학협회의 창립을 주장하였고, 이 협의회에 1901년 당시 124개의 시민대학과 50,000명의 회원이 가입해있었다(Defraigne-Tardieu, 2009: 90).

드레퓔스Dreyfus 사건⁶⁾이 끝날 무렵,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과 노동자들이 어렵게 공존하였으나 가르침이 너무 약해 당시의 정치계는 시

6) 1894년 9월 프랑스군 육군대위 알프레드 드레퓔스는 군의 기밀문서를 프랑스 주재 독일대사관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된다. 군 당국은 드레퓔스의 필적이 첩자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를 진범으로 지목한 뒤 중신 유형을 선고했다. 2년 뒤인 1896년 새 정보부장 피카르 중령은 진범이 헝가리 태생의 에스테라지 소령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권위 실추를 두려워한 군 지도부는 그 사실을 얼버무리며 오히려 피카르를 좌천시키고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에스테라지를 무죄 석방해버렸다. 1906년 7월 드레퓔스가 최고재판소에서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이 역사적인 사건은 발생 12년 만에 막을 내렸다.

민대학 발달을 단호하게 중단시키려 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시민대학을 만들었으나 지식인들이 빠른 속도로 시민대학을 점유했다. 그 이유는 강연 주제를 선택할 때, 아무래도 노동자층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고, 노동자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는 것은 더 더욱 드물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식인과 노동자의 교류는 점점 어려워졌고, 주제는 철학, 역사, 문학, 정치경제, 과학 등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강연장 분위기는 강사 위주로 엄숙히 진행되어 상호 교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지식인과 수공업자들의 한담 시간이 되었고, 지식인들의 압도적인 위상으로 인해 시민대학 본래 취지였던 상호 교육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대학이 없어졌고, 1914년에 약 20개 정도만 남았다.

1904년 한 회람서에는, 유명한 모든 시민대학들이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 파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파리의 30개 시민대학과 지방의 39개 기관 등 총 69개의 시민대학이 참가하였다. 이 때, 시민대학에는 3가지 임무가 주어졌다. 첫째 임무는 교육에 실패한 시민대학을 지원하는 것이며, 둘째는 공권력에 직면하여 도덕적 힘을 갖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최고의 기능을 보장하는 회보를 출판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시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인쇄된 7편의 회보는 1905년 10월에서 1910년 8월까지 나왔으며, 마지막 협의회는 1912년에 개최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은 시민대학에 대한 계획의 본질을 변화시켰고 양차 대전 사이에 재탄생한 시민대학은 정치의 방향과 일치한다. 철학자 시몬느 베이유 Simone Weil는 부르주Bourges의 여자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1935년 12월 『노동자 대학의 창립을 위하여』를 출판하였다. 노동자 대학 설립 모임은 1936년 1월 24일에 구성되었고 준비 기간 후 1936년 2월에 첫 강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제 2차 세계 대전은 시민대학의 발전에 새로운 단절의 시간이 되어 여러 기관들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새로운 시민대학은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위치한 알자스Alsace 지방에서 나타났으며 그 때부터 매우 급속히 발전하여 오늘날 프랑스의 시민대학 형태를 갖게 되었다. 1963년에 랭Rhin⁷⁾ 시민대학이 뮐루즈Mulhouse에서 탄생하였는데 이곳에서 개최한 학회는 시민대학과 파리의 대학이 함께 만났다는

점과 동시에 기존의 시민대학과 새로운 형태의 시민대학이 마주하는 접점을 이루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왜 알자스 지방인가?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독일과 가까워 유사한 문화적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알자스 지방에는 오래전부터 독일의 시민대학Volkshochschulen 형태가 존재해왔고, 성인교육의 공공 서비스 임무를 책임져왔다. 독일 시민대학의 영향은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현재에도 매우 중요하게 남아있다.

랭 시민대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프랑스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시민대학연합AUPF(Association des Universités Populaires des France)을 발족한 대학이기 때문이다.

1983년 5월, 뮐루즈 시민대학은 당시 시민대학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학회를 개최한다. 이 때, 일리치Illich⁸⁾가 참석하였고 13개 시민대학들이 참여하였다. 이어 1984년 12월에는 민속학, 지역문화, 문화활동을 주제로 학회가 있었다. 이 두 모임에서 시민대학이 국가 수준의 구조적 형태를 갖추고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숙고하였다.

1985년 5월 부르쥬Bourges에서 시민대학과 건강이라는 주제를 다루었고, 프랑스 시민대학이 함께 연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시민대학의 일부 책임자들은 자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1986년 11월 학회에서 시민대학과 생활외국어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고, 9개의 시민대학이 참여하여 국가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세 가지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다. 즉 이미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선발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것, 시민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 마지막으로 시민대학의 다양성과 각 기능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이었다(Chateigner,

7) 랭(Rhin)은 독일어로 라인강을 말한다.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은 프랑스령과 독일령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프랑스에 속하지만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다. 알자스 지방은 보주 산맥과 라인강 사이에 있으며, 강줄기를 중심으로 두 개의 행정구역이 형성되었다. 바로 오랭(Haut-Rhin)과 바랭(Bas-Rhin)이다.

8) 192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철학자이자 신학자로서 『학교 없는 사회』를 저술하였고 해방신학 운동을 전개한 진보학자였다.

2010).

그 후 10년이 지난 1996년, 프랑스의 시민대학연합AUPF은 약 40여 개의 지방, 시도, 지역 수준의 모임을 통해 60여개의 시민대학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프랑스 본토와 프랑스로를 포함하여 17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시민대학 프로그램에는 건강, 언어, 컴퓨터가 주를 이루며, 대학들이 연합하여 관리하는 강좌에는 문화 마케팅, 소통 전략, 연합과 시장 등이 있다. 세계화와 관련 있는 주제에는 사회적 관계, 유럽, 지역 개발 등이 있다.

현재 프랑스의 시민대학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100개 이상의 기관이 프랑스 시민대학연합AUPF에 등록하여 성인교육의 도약적 발전에 기여한다. AUPF는 더 이상 불어권 시민대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시민대학이 모여 매년 개최하는 학회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는 유럽이 프랑스 시민대학에 보이는 관심 정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2004년 11월 메스metz에서 개최한 학회는 유럽의 많은 시민대학들과 유럽성인교육협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학회를 기념하여 2004 그룬트비Grundtvig 상을 수여하였는데, 그 당시 수상 프로그램은 소크라테스와 에라스무스⁹⁾라고 명명되는 프로그램에 충분히 견줄만하였다¹⁰⁾.

프랑스 시민대학연합AUPF에는 시민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 뿐 아니라 UTL, UTP, 노인 대학¹¹⁾ 등이 공동 사이트를 통해 여러 유형의 운영

9) 소크라테스는 유럽 국가의 학생교류 프로그램 전체를 말하며 2007년부터 교육과 양성과정 프로그램(2007~2013)으로 대체되었다. 그 전까지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중 에라스무스가 가장 유명하였다. 에라스무스는 12개 국가의 유럽공동체에서 가장 성공적인 교육실천의 한 사례이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학교와 학생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10) 그룬트비상은 성인을 위한 상으로 학업을 다시 수행하거나 새로운 자격을 위해 준비하여 졸업장을 취득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개인과 사회의 발달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한 경우에 주어진다.

11) 시민대학이라는 말을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유시간대학(UTL) 등과 같이 시민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1973년 처음 시작하여 1981년에 노년학의 발달로 제 3세대 대학으로도 발전하였다. 다양한 시민대학의 종류가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형태와 유사한 시민대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형태를 공유한다. 또한 매년 11월 중에 공동의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대학과 성인교육 책임자와 운영자들이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2008년 여름, 스키지라 살Cerisy-la-Salle에서 시민대학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학회를 개최하였다. 시민대학 대표들이 만나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고 역사적 기원과 참여 기관의 운영 목표와 특성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프랑스 시민대학은 19세기 말에 시작하여 1차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알자스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시민대학연합은 1960년대 다시 부흥하여 현재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캉Caen 시민대학은 교양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2002년 철학자 M. 옹프레가 처음 설립하였고, 그 후 2005-6년 리옹Lyon 시민대학이 캉 시민대학을 모델 삼아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남동부 지역 11개 기관과 북서부 지역 4개의 시민대학으로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III. 프랑스 시민대학의 운영

첫째 유형으로 언급한 프랑스 시민대학연합AUPF의 사례 중 우리나라 시민대학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알자스 지방의 유럽시민대학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것이며, 두 번째 유형으로 옹프레Onfray가 창안한 캉 시민대학의 운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¹²⁾.

1. 유럽시민대학(알자스 시민대학)

1920년에 교수들이 모여 대학교육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 아래 창립되어 1928년 시민대학이 되었고, 1965년 유럽시민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12) 알자스 시민대학 개설강좌의 종류를 안내하고 있어 단순히 나열하는 것 같지만 각 강좌별 운영 특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강좌를 진행하고 무엇을 다루는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는 강좌수가 많더라도 최대한 소개하고자 하였으나 캉 시민대학은 각 강좌별 제목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강의 콘텐츠를 인쇄자료로 공개하지 않아 자료 찾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시작하였다. 유럽시민대학은 학력의 수준과 무관하게 자신의 관심 분야와 호기심에 따라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며, 재능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시민대학은 1919-1920년에 첫 강좌를 시작할 때, 프랑스 언어와 문화를 가장 먼저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언어 관련 강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1940-50년대에는 강좌가 다양해졌다. 오늘날에는 수강 학생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상호작용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대학 밖 대학"으로서 수강생들이 서로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시민성을 키우는데 주력한다.

1) 2010-2011년도 개설 강좌

◇ 외국어

수준별로 나누어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따라 문법반이나 회화반, ToEIC 시험 대비반, 집중 강의반도 있다. 직장생활의 성공을 위해 영국에서 인정되는 졸업장을 취득할 수도 있고, 미국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 Toefl과 ToEIC 시험 대비반을 통해 미국문화에 대한 지식도 심화시킨다. 동시에 프랑스의 그랑제콜 시험 준비반이 있기도 하다.

독일어의 경우, 수준을 나누어 회화, 읽기와 듣기, 문학작품과 연극 등을 배운다. 스페인어도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문화 강의와 더불어 회화, 연극, 스페인어 시험대비반 등을 운영한다. 이탈리아어도 역시 수준별로 이루어지며 문학, 비즈니스, 영화, 노래 등 분야별로 개설되어 있다. 그 밖에 현대 아랍어, 현대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강의가 있다. 특히 한국어 강의는 주 2회 초급과 중급 2개 반으로 진행한다.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프랑스어는 입문, 초급, 중급, 고급반 모두 4수준으로 나누어 가르친다. 입문반은 구어 이해, 기초 의미구조와 어휘 등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반이며, 초급반은 말하기와 쓰기 표현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학습자들에게 적당하다. 중급반은 구어 이해와 표현에 대한 심화, 문법 규칙 습득이 목적이다. 마

지막 중급반은 어휘를 다양화하고, 문법 규칙(시제 일치, 복문), 요약과 의견 정리 등을 심화한다. 반을 나누기 전에 언어 능력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보통 주 2회 집중 강의를 하나 고급반은 주 1회 진행한다.

이 뿐 아니라 프랑스어 회화반을 주 1회 또는 주 2회 운영한다. 또한 일반 프랑스어능력 자격시험(DELF)과 프랑스어 전문시험DALF 대비반을 주 1회 2시간 수강할 수 있으며, 각 반마다 추가 요금 55유로를 지불한다. DALF 시험을 통과한 비프랑스어권 학생들은 프랑스 대학입학을 원한다면 언어시험을 면제받는다.

◇ 자국민을 위한 프랑스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철자와 세련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 1회 운영하는 프랑스어 강의가 있다. 이 강의는 경쟁시험과 논술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자전적 소설 등과 같은 어려운 책을 함께 읽는 프랑스 문학 수업도 있다.

◇ 알자스어/알자스 역사

알자스 지방은 고유한 지역 언어를 사용해왔다. 『알자스어, 알자스 문학과 알자스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싶은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강좌이다. 로마 시대에서 1950년대까지 알자스 지방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주 1회 연도별로 소개하고,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예정된 5개의 견학지를 탐방한다.

◇ 철학

철학 강좌는 모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도덕과 윤리에 관련된 한 가지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이번 해에 다루는 주제는 고소나 고발의 문제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의를 밝히고자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는 일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사람들은 모두 고소할 자격이 있는지를 다룬다. 원고와 피고로서의 경험과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진리와 정의의 문제를 접근한다. 여기에 철학과 정신분석학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는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연구한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의 책을 함께 읽어가며 욕구가 나타나는 과정을 깊이 있게 생각해본다. 사람이나 사물을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부족한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구를 현실로 끌어내는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이는 2009-2010년 강의를 좀 더 발전시킨 내용으로서 결국 욕구는 지속적으로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된다.

셋째는 강의실 밖이나 영화 속에서의 철학에 접근하는 내용이다. 학기가 시작하는 10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월 1회 토요일 오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한다. 관람 후, 영화 내용과 관련된 개념, 글, 철학적 문제를 대화로 진행한다. 마이크 레이트, 우디 알렌, 봉준호, 펠리니, 외스타슈, 피알라 등의 영화를 폭넓게 선정하여 행복, 자연과 문화, 정의 등의 주제에 철학적 질문을 하고, 신의 죽음이나 유희, 괴물, 성 등에 관한 개념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 우주론

이 강좌에서 기독교 인본주의자 N. 코페르니쿠스Copernic(1473-1543)를 탐구하여 우주에 대한 당시의 관점을 이해한다.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라는 책을 통해 16세기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우주론과 다르게 제시한 지동설을 이해한다.

◇ 역사학

종교사를 중심으로 15세기에서 17세기의 유럽 정치와 종교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가의 권력과 종교에의 신념을 강조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 주 1회 1시간 30분씩 강의를 진행한다. 이 강좌 외에 16세기 중앙 유럽에서 제 1차 세계대전까지의 유럽 왕조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 중앙 유럽의 역사를 재구축해가는 시점에서, 거의 흩어져 버린 왕족의 후손들 예를 들어 로마노프 왕족, 합스부르크 왕족 등 왕족의 탄생과 몰락의 과정을 다룬다.

◇ 예술사

유럽시민대학에서 매우 자세히 구성되어 있는 강좌가 바로 예술사이다. 강

좌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술사 입문, 전통 고고학, 크레타 섬의 도시와 궁전(미노스와 미케네 문명),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 베니스의 예술, 들라크루와Delacroix에서 르누와르Renoir까지, 유럽 바로크 여행, 황금의 세기 18c 예술, 모더니즘과 아방 가르드avant-garde로 향하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예술, 르네상스시대에서 프랑스 혁명까지의 프랑스의 성과 정원, 근현대 미술사, 오페라의 역사, 영화, 19-20세기 가구의 역사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강좌들은 보통 주 1회 개설하고 있으나 예술사 입문과 르네상스 예술, 베니스 예술 여행, 유럽의 바로크 예술, 18세기 예술, 프랑스 성과 정원, 오페라의 역사 등은 주 2회 개설하였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수강해 온 학습자들을 위한 강좌와 신규 학습자들을 위한 강좌가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몇 개의 강좌를 살펴보기로 하자. 예술사 입문은 르네상스에서 19세기까지의 주요 단계를 설명하고, 프랑스의 바로크와 고전주의, 로코코에서 신고전주의까지의 변화, 19세기 주요 예술적 특성을 다룬다. 이 강좌의 목적은 예술양식과 형태의 변화를 알고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지배적인 예술양식의 맥락에서 작품과 예술가를 이해하는데 있다. 고고학은 지중해의 유명 유적지를 소개하면서 헬레니즘, 로마의 변영, 최근에 발견된 고대 문명의 유적을 설명하는 강좌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 시간에는 15-16세기 여러 지역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가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플로랑스와 메디치 가문, 밀라노와 스포르자 가문 등이 그 예이다. 보티첼리,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같은 화가와 알베르티, 쉴 로맹과 같은 조각가, 그 외 궁전과 정원, 성당, 조각품 등을 설명한다. 강의 기간 중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 실제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갖는다.

들라크루와에서 르누와르까지의 강좌를 보면 17세기 터어키 여행으로 시작 한 동양에 대한 관심이 18세기 고대 이집트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어지고, 이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여행의 욕구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그동안 이탈리아로의 여행이 모든 예술가들이 가는 경로였다면 이때부터 동양으로의 여행은 새로운 여정이 되었다.

유럽 바로크 여행 강좌는 17-18세기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발견하고자 로마, 나폴리, 비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실리아 등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을 탐색하고 예술가들을 탐구한다. 독일의 바로크 양식을 살펴보는 견학과 이탈리아 여행도 계획되어 있다. 황금의 세기 18세기 예술 강좌는 네덜란드와 스페인이라는 매우 상이한 국가의 유명한 예술가를 소개하고 예술작품을 감상한다.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로 향하는 19세기말-20세기 초 예술 강좌는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는 예술운동인 상징주의와 20세기 초 표현주의, 야수파, 입체주의, 추상화, 바우하우스 등의 예술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존의 격식을 갖춘 예술 표현을 거부한 20세기 초 예술작품은 당시 사회와의 깊은 단절의 의미를 배운다.

프랑스의 성과 정원에 관한 강좌에서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성과 정원을 루와르Loire 강변가에 처음 조성하였으나 프랑스 혁명기에 쇠퇴한 것에 대해 설명해 준다. 주거지 형태에 따른 성의 특성, 성 내부의 조각품, 장식물 등에 대하여 배우고 유명한 샹보르성, 베르사유 궁전 등을 방문한다.

근현대 미술사 강좌는 19세기 말에서 현대적 창조활동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오페라 역사 강좌는 오페라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역사, 유명한 작품, 가수, 감독을 통해 오페라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 음악학 강의가 아니라 문학작품, 영화, 회화 등 다양한 예술표현의 형태를 참조하며 진행한다.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강의는 오페라를 다시 보며 노래를 듣는다. 또한 랭Rhin 오페라 극장을 탐방하여 극장의 구조를 살펴보고, 공연 연습 중인 팀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는다.

영화 강좌는 세계 영화계의 가장 위대한 감독들을 탐구한다. 비스콘티, 프리츠 랑, 오손 웰즈, 아키라 쿠로사와, 장 콕토, 히치코크 감독 등 그들의 유명한 작품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의 연대순 분석, 스토리 진행 방식, 주제 분석 등을 시도한다. 감독의 영화를 발췌하여 함께 관람하기도 한다.

◇ 심리학

심리학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4가지 종류의 야간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심리학psychologie sociale으로 사회학의 인접학문이다. 집단 전체

를 분석하기보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을 강조한다. 사람이나 소집단에 관심을 갖는다면 부부나 연인, 가족, 리더십, 태도 등이 주제가 되고, 집단의 현상을 접근하면 선입견, 소문, 군중 심리, 사회계층을 탐구한다. 둘째는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ie 강좌이다. 이 학문은 정신이상에 관한 분야이며 특히 신경증, 강박증, 우울증을 설명하면서 증상, 형태, 변화 등을 설명한다. 사이코패스, 섭식장애, 성도착증과 같은 행동 특성을 배우고 의학적 진단, 정신분석가, 인지행동치료자, 인간중심치료의 개입 원칙과 적용을 이해한다.

셋째, 심리학 관련 강좌는 성격과 인격personalité et caractère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다. 성격은 서양에서 매우 분명한 개념이지만 문화마다 같은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속학, 임상심리학, 심리검사, 필적 감정, 정신분석학과 관련지어 성격을 탐구한다. 또한 유전, 계층,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 신체구조와 성격의 관계를 살펴본다.

네 번째 심리학 강좌는 심리적 고통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개설된다. 신경증 환자의 고통, 사고를 당한 후 감정 쇼크, 업무 스트레스, 중환자의 절망, 간병인의 불편함, 교수자의 불만 등 다양한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사회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리적 고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현상이 너무나 대중적이어서 병명을 갖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한지를 설명한다. 20세기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연구의 역사와 변화를 통해 심리적 고통의 명확한 개념을 형성해간다.

◇ 사회학

이 분야에는 한 개의 강좌가 있는데 강좌명은 도시 공간의 변형이라고 한다. 유럽 대륙 도시들의 정비, 도시 관리, 도시 간 개발 등을 다루며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성, 지역 위원회 활동 참여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 천문우주학

모두 2개의 강좌인 입문반과 심화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저녁 6시 30분에 천문대에서 이루어진다. 입문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별을 관찰하며, 하늘과 다양한 천체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는 강의이다. 심화반은 천문학

이 과학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로 수학과 물리학보다 먼저 연구되었고, 우주학자는 우주물리학자가 되어 우주에서 보내는 빛을 꾸준히 해독해 온 사실을 배운다. 별의 중심에서 은하계까지, 태양에서 가장 먼 퀘이사까지 등 현대 천체물리학을 발견하는 기회를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 식물학

식물학 강좌는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며, 식물의 생명과 다양성이란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와 6시에 식물연구소에서 배울 수 있다. 각 강좌의 초기에는 다양한 식물군에 대하여 그림이나 삽화를 통해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가장 기초적인 개념도 다시 설명해준다. 강의 후반부는 한 개나 여러 개의 식물에 대한 자세한 탐구와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둘째 강좌에서는 균학mycologie과 관련하여 버섯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숲에 산책을 나가 독이 있거나 몸에 해로운 버섯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강의실에서는 버섯의 생태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버섯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자세히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

입문과정은 그룹 1과 2로 나뉜다. 그룹 1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30분까지 격주로 1시간 30분씩 13회 강의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간 동안 5회의 숲 체험을 나간다. 그룹 2는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나 시간만 변경하여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까지 이루어지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 숲 체험을 한다.

심화과정도 그룹 1과 2로 구분하여 자연에서 발견되는 버섯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아 숲 체험을 하고, 그 대상자는 초보 학습자뿐 아니라 선행 학습자들도 포함된다. 그룹 1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4시간 동안 숲 체험을 하고, 그룹 2는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숲 체험을 시작한다.

다음으로 예술 분야의 시민대학 강좌로 태생, 회화, 조각, 사진, 음악, 연극 등의 강좌가 있다. 연극 강좌는 초보 강좌와 심화 강좌, 가족 연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보를 위한 연극 강좌에서는 글과 인물에 접근하기 위해 연습을 통해 자신을 먼저 알아가며, 또 다른 초보를 위한 강좌는 즉흥 연극으로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개의 심화 강좌는 시민대학에서 1년간 연극

강의를 수강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물과 무대에 관한 공부를 하여 마지막에 관객들 앞에서 간단한 공연을 올리기도 한다.

그 밖에 실무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컴퓨터 활용과 시청각 기술 과정이 있으며,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설되어 있다. 또한 자기개발 과정으로 글쓰기와 자기이해 강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글쓰기

이와 관련한 강좌는 모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적 글쓰기 아틀리에로 매회 3시간씩 총 13회 진행한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고, 글을 쓰는 욕구를 통해 글쓰기의 기쁨을 발견한다. 글쓰기 분야는 자서전, 소설, 시, 언어, 다양한 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창조적 글쓰기 아틀리에에는 동일 시간대에 다른 강사가 담당한다. 프랑스어의 느낌을 살려 용어 선정, 문체, 작가의 의도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강의이다. 셋째는 시와의 만남으로 시를 읽고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써보는 과정을 직접 체험한다. 19세기부터 21세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명한 시를 선정하여 모방을 통해 창조해낸다. 네 번째는 고전 강좌로 2시간씩 총 20회 진행한다. 고전에서 발췌한 텍스트의 문체를 가지고 문학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을 통해 설명한다. 강의 후반부에는 여러 작가의 문체를 모방하여 자신만의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갖는다.

◇ 자기 이해

이와 관련하여 5가지 강좌가 있다. 먼저 기억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론적 설명을 한 후, 단순한 연습문제부터 시작하여 말, 그림, 수와 같은 매체로써 기억력을 강화하는데, 이때는 주의력, 조직력, 방향성, 상상력, 흥미 등이 바탕이 된다. 강좌는 매회 1시간 30분씩 총 13회가 있으며, 1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1년 동안 한 학기씩 총 2회 개설된다.

둘째 강좌는 말하기 과정으로 매 2시간씩 총 20회 동안 학습자는 의사소통 기술과 형태를 학습한다. 억양, 발음 조절, 비언어적 표현 등과 같은 의사소통의 형태와 논쟁하는 것, 의견을 발전시키는 것, 창의성을 증명하는 것 등과

관련한 내용, 그 밖에 계획을 세워 발표를 구조화한다. 이 강좌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상급학교 진학준비생, 취업면접 준비생, 그룹지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감성지능 아틀리에가 1학기 동안만 매회 2시간씩 총 12회가 있다. 오늘날 감성지능은 지능보다 중요한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다. 학습자들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게임과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한의 학예의 입문과 진단 방법론 연구가 개설되어 있다.¹³⁾

지금까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시민대학의 프로그램과 강좌 개설 현황을 살펴보았다. 시민대학도 일반 대학처럼 9월에 강의를 시작하여 그 다음 해까지 이어지므로 2010-2011년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며, 개설 강좌의 수는 거의 1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시민대학은 일반 대중들에게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평생학습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유럽시민대학은 알자스 지방의 작은 도시 아그노Haguenau와 비상부르Wissembourg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독일 마을 켈Kehl 시민대학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개설 과정 분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설강좌 분야	개설강좌 종류
외국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현대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프랑스어	모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지역어	알자스지방 언어와 문화
인문사회	철학, 역사학, 예술사, 심리학, 사회학
자연과학	우주론, 천문우주학, 식물학
예술과정	태생, 회화, 조각, 사진, 음악, 연극
신체건강	균형과 이완, 체조, 춤, 여가와 취미
실무과정	컴퓨터 활용, 시청각 기술
자기개발과정	글쓰기, 자기이해

13) 유럽시민대학은 2010-2011년 프로그램 안내서에 한의학 입문과 진단 방법이라는 두 강좌를 자기 이해라는 범주 안에 제시하고 있다.

2) 운영 방법

유럽시민대학의 강의는 주당 1시간 30분으로 1년에 26회로 이루어지는 단순 강의가 있고, 집중 강의는 1시간 30분씩 주 2회 총 52회로 구성된다. 강의 장소는 모두 33곳에서 강좌가 이루어진다. 대학 강의실, 연구소, 천문대, 교사 교육대학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강사는 시민대학의 민주적인 목표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 원칙, 기대 수준, 보장 내용, 참여 활동 등 모두 네 가지 분야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일반 원칙을 보면 강사는 지식의 공유, 상호 의견의 존중, 상업 광고와 지나친 선전 금지 등을 꼭 지켜야 한다. 시민대학은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장소, 물리적 여건, 지속시간, 시간표 등에 관한 운영을 책임 맡는다. 교육을 마치고 관리 평가하며, 평가 후 종합의견은 추후에 피드백 한다.

둘째 강사에 대한 기대수준은 모두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사 자신이 다루고자 했던 주제를 완벽히 이해한다. 둘째, 지식과 지식에의 접근 방법 또 지식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춘다. 셋째, 그는 학습자의 의견과 요구를 들어주고, 적절한 발언을 하여 자신을 표현하며, 규칙과 시간 분배 등에 대해서도 학습자 집단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교수매체를 다루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대학은 강사들에게 사적인 생활을 존중해주고 프랑스 시민대학연합AUPF이 지향하는 방법과 일치하는 조건에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여건을 지원해주며, 적절한 교육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표와 시간수를 존중하고, 시민대학연합의 책임자 동의가 있을 때만 급여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강사는 시민대학 교육팀의 구성원이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시민대학의 운영을 개선해갈 수 있다.

방학은 학기와 같이 진행되어 1년에 모두 4회가 있다. 학기가 보통 9월에 시작하여 투생Toussaint 방학은 보통 10월 23일에서 11월 4일까지, 크리스마스 방학은 12월 18일에서 다음해 1월 3일까지이다. 겨울 방학은 2월 19일

에서 3월 7일까지, 부활절 방학은 4월 16일에서 5월 2일까지 지속된다.

시험은 프랑스 시민대학 언어강좌 수료증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에게는 1급 수료증, 고급 수준 이상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2급 수료증을 준다. 시험은 5월 중에 등록하여 6월 초에 실시되며, 응시료는 15유로 정도 지불한다.

2. 캉(Caen) 시민대학 모델

철학자 M. 옹프레Onfray는 19세기 말 드에름Deherme의 시민대학 발생 초기의 특징을 계승하여 2002년에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캉Caen에 시민대학을 설립하였다. 설립의 목표는 지식에 대한 욕구, 교육의 무상성, 상호성 등을 결합하여 문화를 대중화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는 철학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말한다(Defraigne-Tardieu, 2009: 97-98).

옹프레는 캉 시민대학을 설립할 때, S. 오프레Auffret, G. 주느비에브Geneviève, G. 폴루앵Poulouin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지인이나 친구들이 모인 지식인 집단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를 둘러싼 친구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지만 동질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이라면 각자가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옹프레(Onfray)가 설립한 시민대학은 지적인 요구가 높은 전통적인 대학의 기능과 철학 카페가 보여주는 대중적인 기능을 동시에 취하였다. 전통 대학에서는 정보의 질과 개인의 진보를 허용하는 원칙을 추구하며, 강의를 먼저 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반면 철학 카페에서는 대중을 위한 개방이라는 원칙 아래 지식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강의의 내용을 쉽게 구성하고자 대화를 우선시한다.

이런 시도가 캉 시민대학에서 처음 이루어진 후, 8개의 다른 시민대학이 설립되었다. 2005년에 리옹(Lyon) 시민대학이 문을 열었는데 특히 설립자인 Ph. 코르퀴프Corcuff는 일반 대중이 전통적 교육모델인 대학교에 쉽게 접근할 수 없으므로 시민대학을 통해 지식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도록 했다.

이어서 프랑스 남동부 지역(나르본, 페르피냥, 몽펠리에, 아비뇽, 그르노블,

엑스, 니스, 님프, 탕스, 툴루즈)과 북서부 지역(캥, 아르장탕, 아라스, 생 브리익)으로 15개 정도의 시민대학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 이들 시민대학은 캥 시민대학과 성격 및 운영 방식이 비슷하다. 이런 시민대학들은 서로 간의 갈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캥 시민대학의 옹프레와 리옹 시민대학을 잘 조직 운영한 Ph. 코르퀴프(Corcuff)에게 좌파적 성향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시민대학의 강의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다.

둘째는 정통성의 문제이다. 교양문화의 정통성은 철학, 인문학, 예술, 자연과학, 과학기술과 같은 주제와 교수자의 약력에서 드러난다. 교수자는 근본적으로 지식인으로서 대학교수, 중등교사, 예술가, 심리학자 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대학의 교수진은 지식인의 세계에서도 중간 정도의 지식인이다. 말하자면 정교수 보다는 조교수 이하, 대학교수 보다는 중등학교 교사, 소규모 대학의 학위소지자들이 더 많다.

셋째는 사실 상상교육이지만 시설을 대여한다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자원 봉사하는 교사들을 위한 비용 부담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캥 시민대학은 지방의회에서 연 40000유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외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기도 한다. 시민대학이 작은 도시에 있으면서 대학이 인접해 있다면 강사 수급 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중부지역에 위치한 대도시 리옹(Lyon)을 중심으로 남동부 지역에 이런 유형의 시민대학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였다.

2010년 가을부터 옹프레를 비롯한 캥 시민대학 강사진들은 자신의 강의 주제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파리의 룽 프앵(Rond Point) 극장에서 매주 목요일 12시30분에서 2시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0월부터 옹프레의 주도 아래 여러 지인들이 함께 모여 캥 Caen 밑에 위치한 아르장탕(Argentan)시에서 맛과 요리 시민대학(université populaire du goût)을 운영하고 있다.

1) 교육과정

캥 시민대학의 2010-2011년 교육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제시한

강좌 순서가 바로 강의를 진행한 순서이기도 하다.

2010년 11월에 개설된 강좌명은 경제학, 생명윤리학, 고전작품 읽기와 코멘트, 재즈, 수학, 노르망디 세미나, 정치사상,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현대문학, 철학, 경제학이 있었다. 12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철학, 재즈, 정치사상, 현대미술,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경제학, 재즈, 수학이 있었고 2011년 1월 강좌는 철학, 재즈, 수학, 정치사상, 영화, 철학, 생명윤리학, 현대문학,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노르망디 세미나, 영화, 철학, 경제학, 정치사상, 영화, 철학, 경제학, 정신분석학, 음악(작곡가 리스트),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가 있었다.

2월에는 고전작품 읽기와 코멘트, 현대문학, 현대미술, 철학, 생명윤리학, 재즈, 수학,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여성과 사회, 철학, 경제학, 노르망디 세미나,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재즈, 수학 강좌가 개설되었다.

3월은 철학, 생명윤리학, 재즈,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정신분석학, 음악(작곡가 리스트), 영화, 철학, 생명윤리학, 현대문학, 정치사상, 영화,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재즈 강좌가 계획되었다. 4월에는 정치사상, 현대미술, 철학, 경제학, 재즈, 수학, 철학, 경제학, 현대문학,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노르망디 세미나, 여성과 사회,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재즈 강좌가 있었다.

5월에는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철학, 고전 작품 읽기와 코멘트,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정신분석학, 음악(작곡가 리스트), 철학이 있으며 6월에는 중순까지 경제학, 경제학, 노르망디 세미나가 개설되었다.

2010년 가을에서 다음 해 학기말까지 진행한 강의 순서를 보면, 문학, 철학, 음악, 미술, 정치, 경제, 사회, 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자신의 일정에 맞게 다양한 장소에서 일반 대중을 위해 자유롭게 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운영 방법

Caen 시민대학은 2010년 9번째 생일을 맞이하였고, 연간 15개의 세미나가 9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연 250시간이며, 그동안 진행한 1720시간은 약 17명의 강사진이 무보수로 참여하였다.

학습자들에게도 완전히 무료로 운영하며 나이 제한이나 학력 요구 수준도 없다. 대학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수준을 평가하는 시험도 없다. 졸업장 수여도 하지 않는다.

강의는 오전 또는 오후 중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씩 진행한다. 첫 번째 시간은 논쟁적 발표를 하며 두 번째 시간은 토론을 한다. 토론 시간에는 주 3회 토론이었음에도 200명까지 모인 적이 있었다.

교육기간은 10월 중순이나 11월부터 5월 또는 6월 중순까지 이루어진다. 강의 장소는 캥 미술박물관, 극장, 기술고등학교 등 공공장소이며,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강사들은 자원봉사자들이며, 대학 내에서 문학, 철학, 사회과학을 전공한 교수들로서 지식의 형식주의로 흐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IV. 결론 : 향후 전망과 시사점

지금까지 프랑스 "대학 밖 대학" 시민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먼저 설명하였다. 시민대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역사적 기원은 어찌하며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시민대학의 발전과정을 요약하였다. 또한 시민대학의 두 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시민대학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F. 샤테니에 Chateigner의 관점에 기초하여 프랑스 시민대학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프랑스 시민대학연합AUPF과 M. 옹프레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캥 시민대학 모델을 제시하였다.

프랑스 시민대학은 여타의 유럽 국가들처럼 그룬트비의 영향을 받아 모든 계층에게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지식에 접근하도록 하는 평등주의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1899년 처음 노동자층의 엘리트였던 G. 드에름이 사상의 협력이 라는 이름으로 첫 시민대학을 출범시켜 당시 지식인과 노동자의 교류를 실천하고자 하였지만 그 꿈을 제대로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프랑스령과 독일령을 반복하던 알자스 지방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대학이 나타났고 현재는 매우 큰 규모의 유럽시민대학으로 발

전하였다. 프랑스 시민대학연합(AUPF) 단체를 발족하여 프랑스 본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였다.

이어서 유럽시민대학이 개설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강좌명과 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2010-2011 학년에 개설한 강좌수가 거의 1000개에 육박하고, 강좌 내용도 외국어, 모국어, 알자스 방언 등 언어 이외에 철학, 우주론, 역사학, 예술사, 심리학, 사회학, 천문우주학, 식물학 등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을 포괄한다. 예술분야의 강좌는 데생, 회화, 조각, 사진, 음악, 연극 등이 있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 활용, 시청각 기술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위해 균형과 이완, 춤, 체조 등이 개설되었고 여가와 취미 과정으로 게임, 패치워크, 바느질, 꽃꽂이, 원예, 양장업, 요리와 식탁꾸미기, 회계, 수학과 기하 등이 있다. 자기 개발 과정으로 글쓰기와 자기이해 과정을 개설하였다.

또 다른 시민대학의 유형으로 2002년부터 철학자 M. 옹프레는 교양과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캥 시민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정통 철학자들에게 학술적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철학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Chateinger, 2010). 그의 강의 콘텐츠는 TV나 라디오에 방송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강의 자료를 구입하고 있다. 그는 캥 시민대학을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강의를 하지만 방송국은 약간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벌써 9년째를 맞이하는 캥 시민대학의 모델은 리옹 시민대학 설립을 시점으로 프랑스 남동부와 북서부 지역에 확산되었고, 지금은 15개 정도의 시민대학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옹프레는 17명 정도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대학의 학기에 맞추어 1인 1강좌를 제공하도록 주관하고 있다. 강좌명은 현대문학, 현대미술, 음악, 고전작품 읽기, 철학,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정치사상, 경제학, 생명윤리학, 수학, 재즈, 여성과 사회, 노르망디 세미나 등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주제를 일반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2010년 가을부터 옹프레 팀은 파리로 진출하여 매주 목요일 롱 프앵 극장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시민대학의 유형을 살펴보면 매우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유럽시민대학은 학술적 성격을 가진 강의 주제도 있지만 언어, 취미, 실무 능력, 자기개발 과정 등 재미있는 주제와 어렵고 무거운 주제의 강좌를 동시에 개설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받는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반면, 강 시민대학은 무료로 언제든지 강좌에 참여할 수 있고 특별히 요구하는 학력도 없다.

앞서 두 가지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언급한 프랑스 시민대학의 특성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 강좌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미 시민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지역의 시민아카데미나 대학 연구소 또는 유관기관을 통해 보급되었지만 프랑스의 시민대학 사례에 기초하여 운영한다면 대중들에게 지금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 시민대학 모델을 참고하여 그동안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었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관련 강의들을 청소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쉬우면서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는 주로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 전문가 그룹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게 강의 내용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들에게 사회봉사의 기회가 되고, 퇴직자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모든 연령의 일반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이 갖는 본래의 기능과 더불어 시민대학은 "대학 밖 대학"으로서의 교육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식의 전달과 확보가 대학 내 구성원들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대중화하고자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대학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청년 학습자에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교육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대상을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개설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격증 과정이나 실무형 교육이 대부분이다. 대학 내에 개설된 일반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이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대중들에게 보급됨으로써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대학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이런 변화의 시작은 대학 구성원에게 달려있다. 옹프레는 철학의 대중화를 실천하고자 교직을 스스로 그만두고 대중적인 철학 강좌에 몰두한다. 대학 내의 철학교육만 중요하다고 보았다면 그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학 구성원들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의실 안에서만 접근하던 교육은 이제 일반인들과의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거기에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무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박탈된 경험을 가진 자들에게 배움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도 시민대학의 다양한 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시민대학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을 주로 소개하였지만 그 밖에 노년대학이나 모든 지식을 다루는 대학, 자유시간 대학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한다¹⁴⁾. 이처럼 시민대학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노인,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에게 적합한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보완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박효진(2007)이 구분하였듯이, 시민참여형, 학과연계형, 의식변화형 시민대학의 유형처럼 다양한 형태의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시민대학 사례를 보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심도 있는 학문적 주제가 이제는 대중화 노력으로 강의실 밖으로 진출하였고, 일반인들은 시민대학을 통해 평생 학습의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대학의 문을 개방하는 것이 요구되고, 일반 시민은 대학교육에 참여를 원하면 언제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대학의 지식과 자원의 개방은 우리나라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차원을 넘어 특강이나 강연, 시민과의 대화 등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지적 수준과 성찰적 사유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14) 프랑스의 시민대학은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년대학이나 모든 지식을 다루는 대학, 자유시간 대학, ATD Quart-Monde 시민대학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프랑스 사례 중 유럽시민대학과 시민을 위해 대학 강의의 개방성을 실천한 칸 시민대학 모델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후속 연구에서 두 가지 사례 외에 다양한 유형의 시민대학을 설명할 예정이다.

❖ 참고 문헌

- 김근혜. 『한국 시민운동단체의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 김세희. 「프랑스의 대안대학」. 『민들레』. 통권 38호. 2005. 90-97.
- 박효진. 『평생학습도시 시민대학 운영 모델 비교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
- 서지현. 『독일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의 평생교육학적 의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양병찬.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대학의 역할」. 『사회교육학연구』. 통권 2호. 1998. 179-203.
- 정수복. 「시민대학, 세상을 재교육하다」. 『시민의 신문』. 2005.
- CHATEIGNER, Frédéric, *Les principaux types d'universités populaires en France*, Synthèse de la communication présentée, 2010, 8p.
- CORCUFF, Philippe, “L’alliance conflictuelle de l’université et du peuple. Education populaire: une actualité en question”, *Agora*, revue de l’INJEP, n° 44, 2007, 36-44.
- DEFRAIGNE-TARDIEU, Geneviève, “L’Université populaire Quart Monde. La construction du savoir émancipatoire”, *Communication au colloque de Cerisy-la-Salle, Les Universités populaires hier et aujourd’hui*, août 2008.
- DEFRAIGNE-TARDIEU, Geneviève, *L’Université populaire Quart Monde. La construction du savoir émancipatoire*, Thèse de l’Université de Paris VIII en Sciences de l’éducation, 2009.
- JEANNERAT, Marc & RAMBAUD, Denis, *Apprendre avec plaisir, Refonder des relations sociales*, Paris: Chronique Sociale, 1999.
- MERCIER, Lucien, *Les Universités Populaires 1899-1914 Éducation populaire et mouvement ouvrier au début du siècle*, Paris: Editions Ouvrière, 1986.
- MIGNON, Jean-Marie, *Une histoire de l’éducation populaire*, Paris: La découverte, 2007.
- ONFRAY, Michel, *La communauté philosophique*, Paris: Galilée, 2004.
- ONFRAY, Michel & Bouchain, Patrick, *Suite à la communauté philosophique*, Paris: Galilée, 2006.

Poujol, Geneviève. *Éducation populaire : le tourant des années 70*, Paris: L'Harmattan, 2010.

RICHEZ, Jean-Claude, "La mémoire légendaire de l'éducation populaire", *Pour*, n° 181, 2004, 106-114.

TÉTARD, Françoise. "Vous avez dit éducation popluaire. Itinéraire chronologique. Education populaire: une actualité en question", *Agora*, revue de l'INJEP, n° 44, 2007, 74-89.

UNIVERSITÉ POPULAIRE EUROPÉEN, Le livret du programme 2010-2011, 2010.

VERRIER, Christian, "La liberté d'apprendre et d'enseigner dans les universités popluaires", *Communication*, n° 427, Biennale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 Paris-La Sorbonne, 1994.

VERRIER, Christian, "Éducation populaire, citoyenneté, culture et pédagogie", Les pratiques contemporaines de l'éducation populaire, *Pratiques de formation*, n° 49, 2005, 29-48.

<http://www.universitepopulaire.eu/Histoire-de-l-AUPF.html>(프랑스 시민대학연합 사이트)

<http://www.u-populaire-europeenne.com/>(스트라스부르 유럽시민대학 사이트)

<http://upc.michelonfray.fr/>(강시민대학사이트)

❖ ABSTRACT

Study of Operation of Civil College,
"the College outside College," in France

HWANG SungWon

Civil college is a public educational institute for theoretical and practical learning.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context behind France's civil college and how it is being operate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to examine Germany in terms of lifelong learning or adult learning, but there is almost no study on Franc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history and operation of civil college, the "college outside college," in France and what Korea should learn from it.

The civil college of France can be discussed in two contexts: first, it is AUPF, which stands for the French association of civil colleges, and it was mostly influenced by Northern Europe and Germany. Second, it is Caen Civil College, which was established by M. Onfray based his philosophical collaboration.

The European civil college opened almost 1,000 courses in 2010-2011 for a variety of subjects, including Foreign Languages, Mother Tongue, the Dialects of Alsace, Philosophy, Cosmology, History, Art History, Psychology, Sociology, Astronomy, Botany, and Natural Science. Courses in Fine Arts include drawing, painting, sculpture, photography, music, and theater.

For another form of civil college, Philosopher M. Onfray has been operating Caen Civil College since 2002 for general education and cultural education. It is not acknowledged by conventional philosophers, but it is contributing to the popularization of philosophy.

In conclusion, the civil college in France has brought in-depth philosophical discussions out of the lecture rooms in an effort to popularize learning, making lifelong learning more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Key Words

시민대학, 프랑스, 프랑스의 시민대학연합, 옹프레, 평생학습

Civil College, France, French Association of civil college, M. Onfray, Lifelong learning

논문접수일: 2011. 10. 25.

심사완료일: 2011. 12. 02.

게재확정일: 2011. 12. 09.